



ABS 적응 끝... '나의 시즌 시작'

부상 복귀 후 부진했던 KIA 타이거즈 나성범이 ABS 적응을 끝내고 팀의 1위 수성을 위해 공격 중심에 선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나성범, 초반 부진 딛고 본격 홈런 공장 가동**  
**“핑계는 없다... 아프지 않고 공백·부진 만회할 것”**



“이런 적은 처음이다”며 당혹감을 보였던 나성범이 ‘적응’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홈런 공장 가동에 들어갔다. 시범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KIA 타이거즈 나성범은 지난 4월 28일 1군에 콜업돼 뒤늦게 시즌을 열었다. 퓨처스리그에서 1경기를 뒀던 그는 콜업과 함께 대

타로 첫 타석을 소화했다. 잠실을 뜨겁게 달군 나성범의 등장 장면, 시작은 거창했지만 마음과 다른 결과들이 이어졌다. 지난주까지 9경기에서 34타석을 소화한 나성범은 단 2개의 안타만 기록했다. 9개의 볼넷을 얻었지만 삼진도 12개를 기록했다. 나성범은 “지금까지 쪽 1군에서 야구를 하면서 초반에 이렇게 안 좋은 적이 거의 없었다. 2할대를 치더라도 안타도 나오고 가끔 홈런도 나오고, 운이 좋아서 행운의 안타가 나오면서 감을 찾고 그런 시즌이 많았다”며 “진짜 페이스가 안 좋을 때도 있었

지만 시즌 중간에 그랬었다. 시즌 시작하자마자 이런 적은 처음이었다. 앞서 초반에 부진했던 경험이었다면 이겨내는 노하우도 있었을 것인데 안 맞다 보니까 조금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올 시즌 새로 도입된 ABS(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가 영향을 미쳤다. 14일 경기에서도 나성범은 생각과 다른 공을 마주하기도 했지만 이날 시즌 마수결이포를 기록하면서 ABS 적응을 끝냈다. 나성범은 15일 두산전에 앞서 “계속 공은 잘 보았다. 감은 좋았다. 연습할 때 배팅할 때도 감은 괜찮았다. 이 감대로만 치자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타석에 들어가려고 했다. 좋은 감 찾으려고 영상도 많이 보고 그래서 어제 좋은 타구가 나온 것 같다. ABS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불이라고 생각했던 게 스크라이크가 되기도 하니까 불리한 볼까운

트에서 방망이가 나갈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핑계 대면 안 된다. 모두 다 동등한 조건이다. 내가 빨리 적응해야 한다. 빨리 적응하는 게 프로야구 선수다”고 이야기했다. ‘핑계 대면 안 된다’던 나성범은 이날 결승 투런 포함 3안타를 만들면서 실력으로 프로의 자질을 입증했다. 팀은 나성범의 4타점 활약 속에 두산의 10연승을 저지하고 승리를 추가했다. 나성범은 부상에서 복귀한 뒤 “걱정”을 했다. 팀이 잘 나가고 있었던 만큼 괜히 팀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공교롭게도 나성범이 합류한 뒤 KIA는 공수에서 흔들리면서 결승이 무뎠다. 나성범은 “내가 올라오니까 크로우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상도 당하고 팀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했다. 역할을 못 해서 미안했다”며 “그런데 어느 팀

이든 우승을 하더라도 위기가 몇 번씩은 온다. 우리 팀에게도 이번이 한 번이지 않을까 싶다. 빨리 이겨내야 한다. 아직 여름도 안 왔다. 7-8월이 힘들고 중요한 달이다. 올스타전 겹쳐서 9월까지 중요하다. 이길 수 있을 때 많이 이겨내야 한다”고 밝혔다. 홈런을 연달아 터트린 나성범은 부상 없이 앞선 공백과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각오다. 나성범은 “오랜만에 느껴본 손맛이라서 홈런을 치고 나서 편해졌다. 센터 방향으로 공을 보내고 있는 점도 좋다. 생각하는 수치 목표는 없다. 아프지 않고 뛰는 게 목표다”며 “시즌 전에도 부상 당하지 말자 했는데 부상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오는지 가늠을 못한다. 부상 신경 쓰면서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전북에 설욕하고 상위권 간다”**

19일 K리그1 13라운드 홈경기  
 4승2무6패로 6위까지 올라서  
 다양한 공격루트 속 수비 관건



광주FC가 19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전북현대를 상대로 연승을 노린다. 사진은 지난 15일 울산전에서 이강현(가운데)의 골이 나온 뒤 기뻐하는 변준수와 박태준. (광주FC 제공)

‘대어’를 잡은 광주FC가 안방에서 연승을 잇는다. 상대는 최하위 부진에 빠진 전북현대다. 광주는 오는 19일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전북을 상대로 K리그1 2024 13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광주는 지난 15일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일정으로 미뤄졌던 울산과의 8라운드 순연 경기를 치렀다. 이 경기에서 박태준이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광주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울산전을 끝으로 1라운드 로빈을 마무리한 광주는 4승 2무 6패를 기록하며 6위까지 올라섰다. 지난해 초반 페이스와 비교하면 흐름이 나쁘지 않다. 지난해보다 승점 1점 앞서고 있고, 득실차도 +1로 같다. 아쉬운 점은 역시 ‘방패’다. 지난해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승점을 쌓아왔던 광주지만 올 시즌 수비가 약점이 됐다. 추가 시간 실점, 득점 후 실점이라는 고민 속에 지난해와 비교하면 5실점이 늘었다. 올 시즌 무실점 경기는 2-0 승리를 거둔 서울과의 시즌 개막전이 유일하다. 수비 강화가 우선 숙제가 된 광주는 ‘무실점 승리’를 목표로 해 전북과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분위기는 좋다. 앞선 대구 원정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기록했지만 공격 흐름은 좋다. 대구전에서 이강현과 변준수가 득점에 성공했고, 울산전에서는 박태준과 이강현이 시즌 첫 골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공격루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울산전에서 정호연과 엄지성의 매서운 움직임이 돋보였다. 이희군이 부상으로 빠진 최진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정호연은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줬다.

정호연은 이날 두 골에도 모두 관여했다. 박태준의 골을 도운 정호연은 이강현의 득점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정호연은 상대 진영에서 수비진을 끌어낸 뒤 킥백으로 유기적인 패스를 이끌며 득점 장면을 지켜냈다. 또 후반 20분 이후 투입되는 정지용-엄지성-가브리엘 ‘삼각편대’가 빠른 발을 활용한 돌파와 속공으로 상대 수비진을 흔들면서 광주 공격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장은 매서워진 만큼 수비에 집중해 전북전 승리를 노려야 한다. 전북 안방에서 치러진 앞선 맞대결에서는 광주는 1-2패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광주가 앞선다. 광주는 최근 4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지

만 임시사령탑 체제의 전북은 1무 2패로 최하위까지 내려앉았다. 앞선 수원FC와의 경기에서는 문선빈, 박재용의 골을 지키지 못하고 후반에만 3골을 허용하면서 2-3 역전패를 당했다. 득실차도 -7을 기록하는 등 ‘전통의 명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광주는 최근 이정호 감독은 ‘용병술’로 재미를 보고 있다. 포지션을 변경하거나 교체한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광주 특유의 창의적인 축구가 살아난 모습이다. 분위기를 바꾼 광주가 전북을 꺾고 상위권 싸움에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는 광주 축구 매력에 빠진 ‘노라조’의 광주FC 응원곡 신곡 발표와 무대 공연도 펼쳐진다. /김여울 기자 wool@

**‘10-10’ 손흥민 유종의 미 거둘까**

20일 셰필드와 EPL 시즌 최종전  
 34경기서 17골 9도움 기록 중  
 개인 통산 3번째 ‘10-10’ 눈앞

랭크 랩퍼드(이상 4회), 무함마드 살라흐, 디디에 드로그바(이상 3회)까지 총 5명으로, 손흥민으로선 충분히 욕심을 날 법한 기록이다. 팀이 처한 상황도 손흥민의 동기부여를 키운다. 토트넘은 37라운드까지 승점 63으로 5위에 올라 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 진출하는 4위는 불가능해졌고 유로파리그 출전이 유력한데, 6위 첼시(승점 60)의 추격을 받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처지다. EPL 1~4위 팀은 다음 시즌 UCL 본선에 나선다. 5위 팀은 유로파리그 본선 진출권을 받고, 6위 팀은 3부 클럽대항전에 해당하는 유로파 콘퍼런스리그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한다. 이달 25일 선두 팀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 8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격돌하는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결승전 결과에 따라 6위에도 유로파리그 출전 기회가 남아 있긴 하다. 하지만 여러 복잡한 섹션을 고려하지 않고 편하게 유로파리그 진출을 확정하는 길은 일단 5위로 마치는 것이기에 마지막 경기에서 토트넘과 첼시의 ‘5위 쟁탈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토트넘의 시즌 결말과 더불어 초미의 관심사는 EPL 우승 트로피의 향방이다. 현재 순위표에선 맨시티가 승점 88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아스널이 승점 86으로 뒤쫓고 있다. EPL 4연패를 노리는 맨시티는 웨스트햄과, 20년 만의 정상 탈환에 도전하는 아스널은 에버턴과 각각 홈경기에 나선다. 웨스트햄은 9위, 에버턴은 15위 팀이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캡틴’으로 한 시즌을 보낸 손흥민이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 토트넘은 20일 0시 영국 셰필드의 브래몰 레인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2023-2024 EPL 최종 38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국가대표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 등을 비롯해 숨 가쁘게 달려온 손흥민의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다. 토트넘 입단 이후 줄곧 공격의 주축으로 함께 호흡을 맞춰 온 해리 케인이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뒤 손흥민은 소속팀에서도 주장에 선임되며 책임감이 한층 커진 한 시즌을 보냈다. 최전방과 왼쪽 측면을 오간 그는 리그 34경기에 출전해 17골 9도움을 올렸다. 득점은 일찌감치 두 자릿수에 도달했으나 도움은 지난해 초 노팅엄 포리스트와의 32라운드에서 9호를 작성한 뒤 멈춰 시즌 10골-10도움 완성이 필요한 한 곳을 할 달 넘게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 도움 하나를 더한다면 손흥민은 2019-2020시즌(11골 10도움), 2020-2021시즌(17골 10도움)에 이어 개인 통산 3번째 10골-10도움 고지를 밟으며 시즌 피날레를 장식한다. EPL에서 시즌 10골-10도움을 3차례 이상 기록한 선수는 웨인 루니(5회), 에릭크 칸토나, 프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